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Super-Eco Tankers is back at Hyundai Mipo for tanker newbuilding

현대미포조선이 Super-Eco Tankers로부터 40,000DWT급 PC(Product Carrier) 1척을 수주했다고 보도됨. 현대베트남조선이 해당 선박을 건조할 예정이며 인도기한은 2022년 6월까지라고 보도됨. (TradeWinds)

Shell books large LNG bunker vessel newbuilding with Pan Ocean

현대미포조선이 팬오션으로부터 LNG버커링선(LNGBV) 1척을 수주했다고 보도됨. 팬오션은 Shell과의 용선계약을 체결한 상황이며 해당 선가는 5,500만달러라고 보도됨. 해당선박은 18,000CBM급 선박이며 2023년 5월까지 인도예정이라고 보도됨. (TradeWinds)

DNV logs record monthly total of LNG-fuelled newbuilding orders

DNV에 따르면 2021년 현재까지 약 50척의 LNG추진선박이 발주됐다고 보도됨. 3월에만 LNG추진선 21척이 발주됐으며 이는 DNV가 집계를 시작한 이후 최고 수치라고 보도됨. 3월 중 계약된 선종은 VLCC 13척 중 10척은 Shell 용선용 선박이라고 알려짐. (TradeWinds)

Gibson says 45 VLCCs and suezmaxes needed if Iran sanctions end

Gibson Shipbrokers에 따르면, 미국의 이란 제재가 종료되면 시장에 45척의 유조선이 추가로 필요할 전망이다라고 보도됨. 미국의 JCPOA(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 재가입을 두고 양국의 협상 진행현황이 긍정적이라는 보도하에 탱커 수요 확대에 대한 기대감도 형성중이라고 보도됨. (TradeWinds)

Putin orders talks on new tax incentives for unconventional oil projects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Unconventional Oil 개발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를 제시하면서 사업을 독려하고 있다고 보도됨. 푸틴의 결정은 모스크바 당국이 지난해 국제유가 하락에 따라 Heavy and Viscous oil greenfield project에 대한 세금혜택을 폐지한지 6개월 만이라고 보도됨. (Upstream)

한국선급-현대중공업그룹, 전략적 제휴

한국선급과 현대중공업그룹은 친환경 규제대응을 위한 전략적 제휴를 체결했다고 밝힘. 국제환경규제에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해운 및 조선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탈탄소화에 기여하기 위해 기술 및 인적자원을 공유하고 협력관계 구축을 위함이라고 보도됨. (선박뉴스)